

파니움 - 숫자 8

제3 라인 개요

Jeff Pippenger

2025-03-17

셀레우코스 3세 케라우노스는 기원전 226년부터 223년까지 잠시 왕으로 통치했으며, 이후 암살당했거나 의문사했다. 셀레우코스 3세는 안티오코스 3세의 바로 직전 왕이었다. 두 형제는 10절의 '아들들'을 가리키며, 1989년의 레이건과 부시를 상징한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분연히 일어나 막대한 군대를 모을 것이며, 그중 하나가 반드시 와서 휩쓸고 지나갈 것이다. 그 후에 그는 돌아와, 그의 요새에 이르기까지 다시 기세를 떨칠 것이다. 다니엘 11:10.

10절은 세 번째 줄이며 1989년의 "종말의 때"를 나타낸다. 이는 11장 40절과 이사야 8장 8절과 연결된다. 이 세 구절의 연결은 11절이 현재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나타낸다는 것을 밝혀 준다. 11절에 제시된 라피아 전투에서는 푸틴과 젤렌스키가 서로 대립하는 적대자로 나타난다. 12절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와 푸틴의 운명을 밝힌다. 13절부터 15절은 파니움 전투를 다룬다.

10절의 주제는 "끝의 때"이며, "끝의 때"에 진리의 봉인이 풀리는 것과 관련된 원칙들에 부합하여, 이 절은 비록 한 절에 불과하지만 수많은 예언의 줄기들이 담겨 있다. 10절은 40절의 숨겨진 역사의 시작을 가리키며, 40절은 셋째 천사의 운동과 14만 4천인의 인침의 시작을 표시한다.

그 구절은 이사야서 7장에서 시작되는 환상에서 밝혀진 대로 레위기 26장의 '일곱 때'를 연결한다. 그 연결은 신성과 인성의 결합을 의미하며, 이는 일곱째 나팔이 울릴 때, 곧 이슬람의 셋째 화 동안에 경건의 비밀이 완성되는 것이다.

그 절은 1989년을 끝의 때로 지목하며, 레위기 26장의 일곱 때와의 연결 속에서 윌리엄 밀러의 기초적인 진리와 1863년의 반역을 포함한다. 그 절은 40절의 감추어진 역사를 시작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1989년 끝의 때에 일어나는 지식의 증가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40절의 감추어진 역사를 이루는 외부 사건들에 대한 예언적 묘사를 시작하고, 또한 일곱 때와의 연결을 통해 1989년과 일요일 법령 사이의 역사 속 내부 사건들도 식별한다.

열이라는 수는 시험을 상징하며, 진리의 이해를 강조하는 이사야 7장의 환상과 해당 구절들 사이의 연관성도 있다.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라. 육십오 년 내에 에브라임이 폐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야의 아들이니라. 너희가 만일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사야 7:8, 9.

당신이 "머리"가 수도(사마리아와 다마스쿠스)와 왕(레진과 레말리야의 아들 페카)을 상징한다고 믿지 않는다면, 당신은 굳게 서지 못할 것입니다. 이사야 8장 8절의

문맥(7장과 같은 환상)에서 서로 바꿔 사용할 수 있는 그 세 가지 상징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11절부터 15절에서 푸틴과 러시아를 남방의 왕으로 지목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보라, 주께서 강의 물, 곧 강하고 많은 물을 그들 위에 일으키시나니, 이는 앗수르 왕과 그의 모든 영광이라. 그가 그 모든 물길을 넘쳐흐르고 모든 제방을 넘어서리라. 그는 유다를 지나가며 넘쳐흘러 지나가서 목에까지 미치리라. 오 임마누엘이여, 그가 펼친 날개가 네 땅의 너비를 가득 채우리라. 이사야 8:7, 8.

10절의 주제는 종말의 때에 시작되어 일요일 법령 때 은혜 기간의 종결로 이어지는 세 단계의 시험 과정이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네 길로 가라. 이 말들은 마지막 때까지 닫히고 봉해져 있느니라. 많은 이들이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며 연단을 받을 것이나, 악한 자들은 악을 행할 것이며, 악한 자들 가운데는 깨닫는 자가 하나도 없으나 지혜로운 자들은 깨달으리라. 다니엘 12:9, 10.

"마지막 때"가 되면 다니엘서는 "봉함이 풀리고",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며, 시험을 받는" 것으로 표현되는 세 단계의 시험 과정이 시작된다. "지혜 있는 자들"은 깨닫지만, "악한 자들"은 깨닫지 못한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열 처녀의 비유에서 기름이 부족했던 것처럼, 그들을 멸망으로 이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멸망한다. 네가 지식을 거절했으므로 나도 너를 거절하여 내게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겠다. 호세아 4:6.

"내 백성"이라는 말은 언약의 백성을 뜻하며, 이 언약의 백성은 "지식이 없음" 때문에 버림받고 멸망하게 된다. 미국의 일요일 법령은 무엇이 잊히고 무엇이 기억되는지가 판가름나는 이정표이다.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말씀은 그 시점의 현재적 진리이다. 그곳에서 두로의 음녀가 기억된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바벨론의 죄를 기억하신다.

또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들려 말하되, 내 백성아, 그 가운데서 나오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재앙들을 받지 않도록 하라. 이는 그 죄가 하늘에까지 미쳤고, 하나님께서 그의 죄악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그가 너희에게 행한 그대로 그에게 갚아라.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두 배로 보응하고, 그가 채운 잔에는 두 배를 채워 그에게 주어라. 요한계시록 18:4-6.

바로 거기에서 그 자녀들, 곧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의 예언적 마지막 세대가 끊어 버림을 당한다. 바로 거기에서 다니엘이 "악인"이라 부르는 자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음"을 드러내는데, 그들이 잊은 하나님의 율법의 부분은 하나님의 예언적 규제 또는 법도이다. 문맥은 분명히, 다니엘서의 봉인이 풀릴 때 증가하는 그 "지식"이 그들에게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다니엘은 "지혜로운 자들"과 "악인들"을 대조하고, 예수님은 "슬기로운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을 대조하신다. 아모스는 같은 부류를 "아름다운 처녀들"이라고 지칭하면서, 동쪽과 북쪽과 바다들로 상징되는 예언적 메시지를 찾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밝힌다.

보라, 날이 이르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떡이 없어 주린 것이 아니요, 물이 없어 목마른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나. 그들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헤매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이리저리 달릴지라도 찾지 못하리라.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들과 청년들이 목말라 기진하리라. 사마리아의 죄를 두고 맹세하며, '단아, 네 신이 살아 있다' 하고, '브엘세바의 길이 살아 있다' 하는 자들도 다 넘어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모스 8:11-14.

그들이 찾지 못하는 그 메시지는, 그들이 "바다에서 바다로, 북쪽에서 동쪽까지" 헤매며 찾는 그 장소들로 상징된다. 아모스는 이 "아름다운 처녀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데 "기근" 가운데 있으며, "그 날에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이리저리 달릴 것이나, 찾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1989년 끝의 때에 다니엘서에서 봉함이 풀린 그 메시지는, 11장 40절과 10절의 성취로, 11장의 마지막 두 절에 요약되어 있다.

그러나 동쪽과 북쪽에서 온 소식이 그를 번민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그는 크게 분노하여 나아가 멸망시키며 많은 자들을 철저히 제거하려 하리라. 또 그는 바다들 사이에 있는 영화롭고 거룩한 산에 그의 궁전의 장막들을 세우리니, 그러나 그는 그의 끝에 이르고 그를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다니엘 11:44, 45.

기름이 없는 어리석고 선하고 악한 처녀들과 지식과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거절한 동방과 북방과 바다의 기별은 일요일 법령 때 하나님께 기억된다. 10절부터 15절까지는 세 번의 전투가 표상되어 있다. 나는 이 세 전투를 세 역사로 구분하지만, 함께 고려하면 그것들은 또한 하나의 선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는 10절이 "끝의 때"를 열고 따라서 세 단계의 시험 과정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열째 절은 레위기 26장의 '일곱 때'와 연결되며, 따라서 재림주의의 토대와 윌리엄 밀러의 사역과도 연결된다. 세 단계 중 두 번째 단계는 열한째 절의 빛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드러나면서 시작된 시각적 시험이다. 둘째 시험은 시각적이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빛에서 현재의 사건들을 알아볼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시험은 열다섯째 절의 파니움 전투로, 그곳에서 시몬 바요나의 이름이 베드로로 바뀌었고, 그리하여 열여섯째 절의 일요일 법령에서 은혜의 시간이 끝나기 직전에 14만 4천의 인침을 표했다.

10절, 11절, 15절에 묘사된 세 차례 전투 각각에서 안티오쿠스 마그누스의 등장을 고려해 보면, 9절부터 16절에 기록된 역사 속에서 성경 예언의 거짓 선지자의 흥기와 몰락도 보게 된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용의 세력의 흥기와 몰락을 지목한다. 9절과 10절은 각각 1798년과 1989년을 지목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9절부터 16절까지는 거짓 선지자의 흥기와 몰락을 지목한다. 40절부터 45절은 짐승의 흥기와 몰락을 나타낸다. 또한 9절과 10절은 1798년과 1989년에 해당하는 40절의 두 차례의 '끝의 때'와도 일치한다.

화이트 자매는 '종말의 때'를 오해하면 예언을 어디에 적용해야 하는지에 관해 혼란이 생긴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준다.

오늘날, 1897년에, 많은 이들이 같은 일을 하고 있다. 이는 그들이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에 포함된 시험의 기별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이 기별들이 아직도 미래의 일이라는 증거를 찾고자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이 기별들의 진리성은 인정하지만, 예언의 역사 속에서 그것들을 제자리에 두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들은 그 기별들을 어디에 위치시켜야 하는지에 관하여 사람들을 그릇 인도할 위험이 있다. 그들은 종말의 때나 그 기별들을 언제에 위치시켜야 하는지를 보지도 이해하지도 못한다. 하나님의 날은 은밀한 발걸음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자칭 지혜롭고 위대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유한한 인간에게서 비롯된다고 여기는 '고등 교육'을 떠벌리고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나 세상 끝의 징조를 알지 못한다. 설교와 강연, 제1권, 290쪽.

10절의 주제는 '끝의 때'이며, 11장에는 여러 '끝의 때들'이 식별되어 있다. 만약 11장에서 '끝의 때들'을 '보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언제 '그 메시지들을 배치해야 하는지' 알지 못할 것이다. 그녀는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고 말하며, 모든 예언자와 마찬가지로 그녀의 말은 마지막 때를 겨냥하고 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그녀가 지목하는 이들은 끝의 때를 이해하지 못하는 한 부류이며, 그들은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넘어지는 아모스의 '아름다운 처녀들'이기도 하다.

11장 1절에서 다리오와 고레스가 함께 서서 1989년의 끝의 때를 가리킨다. 프톨레마이오스가 바벨론으로 가서 기원전 246년에 북방 왕을 사로잡아 이집트로 끌고 갔을 때, 그것은 7절부터 9절에 나타난 대로 차례로 1798년을 예표한 것이었으며, '끝의 때'였다. 10절은 1989년의 '끝의 때'이다.

1798년은 기원전 723년에 시작된 이스라엘 북왕국에 대한 흠어짐의 2,520년이 끝나는 해이다. 그로부터 1,260년 뒤인 538년에 교황권이 1798년까지 1,260년 동안 통치하였다. 1798년은 "끝의 때"인데, 이는 "일곱 때"의 끝이며, 또한 1,260년의 끝일 뿐 아니라 다니엘서 12장의 1,290년의 끝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1798년은 "끝의 때"이므로 538년 역시 "끝의 때"이다. 538년은 이교가 하나님의 성소와 그의 군대를 짓밟아 온 1,260년의 끝이며, 그 뒤를 이어 교황주의가 같은 일을 같은 기간 동안 행하였다.

538은 교황권의 강화를 상징하며, 그런 의미에서 일요일 법령 때 교황권이 다시 강화되는 것도 상징한다. 일요일 법령은 "끝의 때"를 지목한다. 그러므로 16절뿐 아니라 1절, 7절부터 9절, 그리고 10절 모두가 "끝의 때"를 표시한다. 이 진리는 그 메시지들을 언제 위치시켜야 하는지 아는 이들에 의해 이해되어야 한다. 폼페이우스는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16절을 성취하였다. 그 뒤를 율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 티베리아스 카이사르가 이었다. 예수의 탄생은 "끝의 때"였으며, 그것은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 시대에 일어났다.

그 후에 그의 자리에 나라의 영광 가운데 조세를 부과하는 자가 일어날 것이나, 며칠이 못 되어 그는 분노로도, 전쟁으로도 말미암지 않고 멸망하리라. 다니엘 11:20.

20절은 11장의 '끝의 때' 목록에 추가되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때 통치했던 티베리아스 카이사르도 마찬가지다.

또 그의 자리에 비천한 사람이 일어나리니, 사람들이 그에게 왕위의 영예를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는 평안히 들어와 아침으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홍수 같은

군세가 그의 앞에서 휩쓸려 패할 것이요, 언약의 지도자도 그러하리라. 다니엘 11:21, 22.

십자가는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확증하러 오신 예언의 한 주간의 중심에서 있다.

그는 한 이레 동안 많은 이들과 언약을 굳게 할 것이며, 그 이레의 한가운데에 제사와 예물을 그치게 하고, 가증한 것들의 넘침으로 인해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니, 마침내 끝이 이를 때까지 그렇게 될 것이다. 또한 정해진 것이 그 황폐한 자 위에 쏟아질 것이다. 다니엘 9:27.

그 주간의 한가운데에서 시작과 끝이 있다. 첫 번째 1,260일이 끝난 바로 그 지점에서 다음 1,260일이 시작되었다. 그 주간은 이방주의와 교황주의가 성소와 군대를 짓밟는 것을 상징하던 북왕국에 대한 일곱 번의 흠어짐과 일치한다.

그때 내가 한 거룩한 이가 말하는 것을 들었고, 또 다른 거룩한 이가 말하는 그 거룩한 이에게 이르되, "매일 드리는 제사와 황폐하게 하는 죄악에 관한 이 환상, 곧 성소와 군대가 둘 다 밟혀 짓밟히도록 넘겨지는 일이 어느 때까지이겠느냐?" 다니엘 8:13.

538은 "종말의 때"이며, 예언적 기간의 끝이기도 한 십자가와도 일치한다. 538과 십자가는 예언의 시작과 끝이 모두 예언적으로 "종말의 때"로 표시되어 있음을 증언하는 두 증인이 된다.

21절과 22절, 20절, 16절, 10절, 7절부터 9절, 그리고 1절은 모두 '끝의 때'를 가리킨다. 23절은 마카베오 유대인들이 기원전 161년부터 158년 사이에 이교 로마와 맺은 동맹을 가리킨다. 하스몬 왕조의 역사는 그들의 첫 전투로부터 기원후 70년 예루살렘 파괴로 끝나기까지, 미국의 배도한 개신교를 상징하는데, 그 상징은 1844년(기간 예언의 끝, 곧 '끝의 때')에 시작하여 기원후 70년으로 대표되는 일요일 법령에서 끝난다.

23절은 모딘 전투가 있었던 기원전 167년과 서기 70년에 '끝의 때'를 지목하며, 이 둘은 각각 1844년과 일요일 법령을 표상한다. 23절, 21절과 22절, 20절, 16절, 10절, 7절부터 9절, 그리고 1절 모두가 '끝의 때'를 표시한다.

24절은 이교 로마의 360년간 지배를 밝히며, 그에 따라 기원전 31년의 시작과 서기 330년의 끝을 모두 '마지막 때'로 표시한다. 27절과 29절은 그 기간의 시작과 끝을 모두 지목하므로, 24절, 27절, 29절, 23절, 21절과 22절, 20절, 16절, 10절, 7절부터 9절, 그리고 1절이 모두 '마지막 때'를 가리킨다.

31절은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세워졌을 때인 538년을 지목하고, 36절과 40절은 "마지막 때"로서 1798년을 지목한다. 31절의 538년과 36절과 40절의 1798년을 비롯해 27절과 29절, 24절, 23절, 21-22절, 20절, 16절, 10절, 7-9절, 그리고 1절이 모두 "마지막 때"를 가리킨다.

"끝의 때"는 41절 이전에 열세 번 언급되며, 41절은 일요일 법령과 관련된 또 하나의 "끝의 때"이고, 아무도 도와줄 자 없이 교황이 그의 끝에 이르는 45절도 마찬가지다. 11장에는 "끝의 때"가 모두 열다섯 번 나타난다. 10절의 주제는 "끝의 때"이다. 이는 144,000명의 인침의 때에 봉인이 풀리는 진리들을 나타낸다.

다음 글에서 계속하겠습니다.